

## 本書の使い方

本書の目的は、初級で学んだ言語知識を、読解を通して実践的な結果につなげることにあります。その実践力の向上のための本書の使い方と、文章の具体的な読み方をご紹介します。

本書の構成は、オープニング・ページにつづく、5つのコーナーによって成っています。

1. 春を知らせる花

本書は、各課が進むにつれレベルアップしていく構成ではないので、何課から読みはじめても問題ありません

本書の目的は言語知識を増やしたり復習することではなく、アウトプットという実践力を獲得することです。

文法の解説：本文に出現している文法事項を解説します

本文の読み物：本書の中心になる部分です

一語彙や文法知識を予習してから本文を読むのではなく、むしろそれらにあまりこだわらずに音読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繰り返すときに語彙・文法知識を参照してください。

語彙：本文に出現している語彙のリストです

囲み記事：必要に応じてさらなる言語情報をオプションとして提示します

話し合いましょう：関連テーマをめぐって話し合う素材を提示します

一もし、授業などを通して仲間読みする場合、ぜひ感想の共有をお勧めします。読書は思考能力や討論能力を高める知的活動ですから、語学力の向上に留まらず内面的な感想をも深めていただけたらうれしいです。「話し合いましょう」はその手助けとして設けてあります。

### 読み方のポイント



- 「繰り返して音読」することが大事です。
- 音読することが苦にならなかつたら、違和感がなくなつたら、表現の塊を覚えたり、語彙を覚えたり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 音読を繰り返すこととともに大事なのは音読を行う態度ですが、つまり「頑張らない」ことが非常に大事です。いわば勉強モードで読むよりは、休憩の手段として読んだほうが良いです。休みの時間に10～15分音読してください。毎日少しずつ読んでいきましょう。
- 本書には音声がついていますが、ヒアリングをメインにするよりは、音読の上達のために用いてください。

音声サイト URL

<https://text.asahipress.com/free/korean/yomikan/index.html>



目次

 1. 春を知らせる花 .....	5
2. 五月病と月曜病 .....	9
3. 五月の記念日 .....	13
4. 出前文化 .....	17
5. 七五三、韓国では? .....	21
6. 食事のマナー .....	25
7. 汁物の多い食文化 .....	29
8. 夏場の保養食、参鶏湯 .....	33
9. 大衆交通 .....	37
10. 結婚式 .....	41
 11. 秋夕 .....	45
12. 兵役の義務 .....	49
13. お風呂の文化 .....	53
14. キムジャン .....	57
15. お正月 .....	61
本文の日本語訳 .....	66
索引 .....	74
文法索引 .....	82



# 1. 春を知らせる花

봄을 알리는 꽃



韓国では3月に学期や年度が始まります。季節的には春が始まる時期であり、春の象徴である「개나리 (ケナリ)」「진달래 (チンダルレ・ツツジ)」が咲き始めます。黄色いケナリと赤いツツジを見て韓国人は春を感じます。

개나리 (ケナリ) は、ユリ科の黄色い花の木です。ユリ科の花を意味するのは「나리 (ナリ)」ですが、「どこにでもある、ありふれた」という意味を表わす接頭辞「개」がつき「개나리」となりました。つまり、町の至るところに咲き誇り、最も身近な春の花として人々に親しまれてきました。一方、ツツジは山に咲く花として、ハイキングや登山とともに楽しまれています。

町中にありふれたケナリは、童謡にも登場し保育園児たちにも歌われますが、ツツジは、「ツツジの花」という詩が有名です。ケナリとツツジの違いは、童謡の素材となる花と詩の素材となる花の違いと通ずるもの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 春を知らせる花

봄을 알리는 꽃

일본의 봄꽃은 뭐니 뭐니 해도 벚꽃입니다. 봄이 되면 <sup>(1-1)</sup> 전국 <sub>[일본내]</sub>에서 벚꽃놀이를 합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일본 각지의 <sup>(1-2)</sup> 벚꽃이 피는 <sup>(1-3)</sup> 시기를 알려줍니다. 벚꽃은 일본 열도의 <sup>(1-4)</sup> 봄을 <sub>[열도에]</sub> 장식합니다. 벚꽃은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sup>(1-5)</sup> 벚꽃 축제도 합니다. 서울의 <sup>(1-6)</sup> 여의도, <sup>(1-7)</sup> 한강공원, 경상남도 <sup>(1-8)</sup> 진해 <sub>[진해]</sub> 등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한국의 봄꽃은 개나리, 진달래입니다. <sup>(1-9)</sup> 개나리, 진달래는 3월에 <sup>(1-10)</sup> 피고 <sub>[사뉘레]</sub> 한 달쯤 뒤에 벚꽃이 핍니다. 개나리는 노란 색의 <sup>(1-11)</sup> 꽃나무로 <sub>[세계]</sub>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진달래는 주로 산에 <sup>(1-12)</sup> 핍니다. 김소월 <sup>(1-13)</sup> 시인의 “진달래꽃”은 아주 유명합니다. “진달래 꽃”을 <sup>(1-14)</sup>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sup>(1-15)</sup> 이제는 개나리, 진달래와 함께 벚꽃도 한국의 봄을 <sup>(1-16)</sup> 대표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sub>[호니]</sub>

<sup>1</sup> 여의도 (汝矣島) : 서울을 서쪽에 흐르는 한강에 떠 있는 섬. 국회의사당이 있다.  
<sup>2</sup> 경상남도 진해 (慶尙南道 鎭海) : 1952년부터 진해에서 매년 4월에 「軍港祭」라는 문화행사가 행われ, 時期的に桜の開花時期と重なるため、桜の祭のようになっている。  
<sup>3</sup> 김소월 (金素月) : 1902-1934. 主に女性の情調で民謡的な律調の詩を書いている。“진달래꽃” (1922) は代表的な作品のひとつである。

## 文法の解説

1-1 봄이 되면 &gt; 봄이 되다 (春になる) + (으)면 (~すれば)

~になる : 가/이 되다

「~が」を用いることに注意!

봄 <sub>[バッチム有]</sub> + 이 → 봄이 되다 (春になる)엄마 <sub>[バッチム無]</sub> + 가 → 엄마가 되다 (ママになる)

~すれば : (으)면

먹다 <sub>[バッチム有]</sub> + 으면 → 먹으면 (食べれば)가다 <sub>[バッチム無]</sub> + 면 → 가면 (行けば)

1-2 피는 시기 &gt; 피다 (咲く) + 는 (動詞の現在連体形 : ~する (+名詞類))

## 動詞・存在詞の現在連体形「는」

## 動詞

먹다 <sub>[バッチム有]</sub> + 는 → 먹는 사람 (食べる・食べている人)대표하다 <sub>[バッチム無]</sub> + 는 → 대표하는 꽃 (代表する花)

## 存在詞

있다 + 는 → 있는 : 시간이 있는 사람 (時間がある人)

맛있다 + 는 → 맛있는 : 맛있는 커피 (おいしいコーヒー)

1-3 알려줍니다 &gt; 알려주다 (知らせてくれる) + ㅂ니다/습니다 (~します)

1-4 피고 &gt; 피다 (咲く) + 고 (~して)

1-5 볼 수 있다 : 보다 (見る) + (을) 수 있다 (~することができる)

먹다 <sub>[バッチム有]</sub> + 을 수 있다 → 먹을 수 있다 (食べることができる)가다 <sub>[バッチム無]</sub> + ㄹ 수 있다 → 갈 수 있다 (行くことができる)

1-6 모르는 &gt; 모르다 (知らない) + 는 (動詞の現在連体形)

1-7 없을 것이다 : 없다 (いない) + (을) 것이다

(~だろう・つもりだ・と思う・はずだ)

먹다 <sub>[バッチム有]</sub> + 을 것이다 → 먹을 것이다 (食べるだろう)가다 <sub>[バッチム無]</sub> + ㄹ 것이다 → 갈 것이다 (行くだろう)

1-8 되었습니다 &gt; 되다 + 았/었습니다 (~しました)



語彙

봄꽃	: 春の花	뭐니 뭐니 해도	: 何といっても	벚꽃	: 桜の花
전국	: 全国	벚꽃놀이	: お花見	일기 예보	: 天気予報
각지	: 各地	시기	: 時期	열도	: 列島
장식하다	: 裝飾する・飾る	인기	: 人気	축제	: 祝祭(お祭り)
유명하다	: 有名だ	전통적으로	: 伝統的に	노란 색	: 黄色い色
꽃나무	: 花の木	동네	: 町	흔히	: 容易く・普通に
주로	: 主に	시인	: 詩人	이제	: 今や
함께	: ともに・一緒に	대표하다	: 代表する		

❖ 알다 (知る・わかる) と 알리다 (知らせる) ❖

이 노래 **알**아요? この歌、知っていますか?  
 내 생각을 다 **알**아 주는 사람은 없어요. 私の考えをすべてわかってくれる人はいません。

이 학교는 수업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참 예뻐요.  
 この学校は授業の始まりを知らせる音がとてもかわいいです。  
 이걸 매일 도착을 **알**려 주는 기능이예요. これはメール到着を知らせてくれる機能です。

❖ 発音の変化: 激音化 (ㄱ・ㄷ・ㄹ・ㅌとㄱが融合) ❖

ㄱ・ㄷ・ㄹ・ㅌの前後にㄱが現れたら、融合してそれぞれㄱ・ㄷ・ㄹ・ㅌに発音される

「ㄱ + ㅎ」または「ㅎ + ㄱ」

장식하다[장시키다] 행복하다[행복카다]  
 파악하다[파아카다] 참석하다[참시키다]  
 축하[추카] 특히[트키] 깜짝 행사[깜짜 쎅사] 닭한마리[다칸마리]  
 좋고[조코] 높고[노코] 많고[안코] 많기[만키]

「ㄷ(t) + ㅎ」または「ㅎ + ㄷ(t)」

비슷하다[비스타다] 비롯해[비로태] 못하다[모타다] 그렇듯이[그러트시]

「ㄹ + ㅎ」または「ㅎ + ㄹ」

입학[이팍]

「ㅌ + ㅎ」または「ㅎ + ㅌ」

않지만[안치만] 많지만[만치]

話し合みましょう 下のテーマから自由を選んでみよう。

- 好きな花はありますか？理由はありますか？
- 日本のお花見と韓国のお祭りとを比べてみましょう。
- 春や花、お花見などにまつわる思い出はありますか？

## 2. 五月病と月曜病

오월병과 월요일



「五月病」と言われているように、なぜゴールデンウィークを挟んで人々の心持はそれほど変わるのでしょうか。

韓国では毎週月曜日に同じような気持ちの沈みや無気力感が現れるといいます。その原因として、仕事や学校が始まるという心理的なものだけではなく、生活リズムの乱れを指摘する声もあります。そんなとき最も大事なものは起床時間といわれています。休み中も早起きをすれば、連休明けや週明けの体のだるさはかなり改善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眠気覚ましのためには明かりが助けになるようです。音楽による聴覚の刺激以上に、カーテンを開けたり、明かりをつけて部屋を明るくすることが良い方法だということです。ただ、現実はその簡単ではないですね。



## 五月病と月曜病

### 오월병과 월요일

일본에서는 5월에 골든위크가 끝나고 나면 <sup>(2-1)</sup> ‘오월병’ 이라고 <sup>(2-2)</sup> 하는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웬지 몸도 무겁고, <sup>(2-3)</sup> 피곤하며, 의욕이 안 생깁니다. 대학생들도 골든위크 전하고 <sup>(2-4)</sup> 후가 아주 다릅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sup>(2-5)</sup> 신선함이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한국은 <sup>(2-6)</sup> 어떨까요? 오월병이 <sup>(2-7)</sup> 있을까요? 학기가 3월에 <sup>(2-8)</sup> 시작되는 한국에서는 2(이)개월이나 <sup>(2-9)</sup> 지난 5월에 새삼스럽게 오월병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월요일’이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월병처럼 몸도 무겁고 피곤하며 의욕도 없습니다. 월요일은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sup>(2-10)</sup> <sup>(2-11)</sup> 금요일 오후부터는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일과 공부에서 해방되기 때문 <sup>(2-12)</sup>입니다. 토요일까지는 그 기분이 계속됩니다만, 일요일 저녁 <sup>(2-13)</sup>이 되면 마음이 무겁고 <sup>(2-14)</sup> 좀 우울해집니다.

일 년에 한 번 <sup>(2-15)</sup> 찾아오는 오월병, 매주 찾아오는 월요일, 어느 쪽이 더 <sup>(2-16)</sup> 견디기 좋을까요?

## 文法の解説

- 2-1 끝나고 나면 > 끝나다 (終わる) + 고 나면 (~してからは)
- 2-2 이라고 하는 > (이)라고 하다 (~という) + 는 (~という+(名詞類))  
 문학 <sup>(バッチム有)</sup> :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 (文学という芸術)  
 엄마 <sup>(バッチム無)</sup> : 엄마라고 하는 존재 (母という存在)
- 2-3 피곤하며 > 피곤하다 + (으)며 (~してさらに)
- 2-4 시작한다는 > 시작하다 (始める) + (는)다는 (~するという+(名詞類))  
 먹다 <sup>(バッチム有)</sup> + 는다는 → 먹는다는 것 (食べるということ)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おいしい料理を食べるということは幸せなことです.  
 가다 <sup>(バッチム無)</sup> + ㄴ다는 → 간다는 사실 (行くという事実)  
 그는 해마다 세금으로 사적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彼は毎年税金で私的な旅行に行くという事実が明るみに出た。
- 2-5 어떨까요? > 어떻다 (どうだ) + (을)까요? (~でしょうか・しましょうか?)  
<sup>(バッチム有)</sup>의脱落
- 있다 <sup>(バッチム有)</sup> + 을까요 → 있을까요? (あるでしょうか?)  
 가다 <sup>(バッチム無)</sup> + ㄴ까요 → 갈까요? (行きましょうか・行くでしょうか?)
- 2-6 시작되는 > 시작되다 (始まる) + 는 <sup>(動詞の現在連体形 1-2 を参照)</sup>
- 2-7 2개월이나 : 2か月も <sup>(数量を表わす語 + (이)나 : ~も (多いというニュアンス))</sup>  
 열 명 <sup>(バッチム有)</sup> + 이나 → 열 명이나 (10人も)  
 이번 일은 두 명으로 충분한데 열 명이나 왔어요.  
 今回の仕事は2人で充分なのに10人も来ました。
- 네 개 <sup>(バッチム無)</sup> + 나 → 네 개나 (4個も)  
 오늘은 수업이 네 개나 있어서 바빠요.  
 今日は授業が4つもあって忙しいです。
- 2-8 지난 > 지나다 (過ぎる) + (은) <sup>(動詞の過去連体形 : ~した (+名詞類))</sup>

### 動詞の過去連体形

먹다 <sup>(バッチム有)</sup> + 은 → 먹은 사람 (食べた人)  
 보다 <sup>(バッチム無)</sup> + ㄴ → 본 영화 (見た映画)

# 3. 五月の記念日

오월의 기념일

2-9 해방되기 때문이다 : 해방되다 (解放される) + 기 때문이다

(~するからである)

2-10 저녁이 되면 > 가/이 되다 + (으)면 1-1을参照

2-11 우울해지다 (憂鬱になる) : 우울하다 (憂鬱だ) + 아/어지다 (~になる)

~に・~くなる : ㅏとㅓ語幹 + 아지다 / それ以外の語幹 + 어지다

좋다 (語幹) + 아지다 → 좋아지다 (良くなる)

멀다 (語幹) + 어지다 → 멀어지다 (遠くなる)

2-12 찾아오는 > 찾아오다 (訪れてくる) + 는 動詞の現在連体形 1-2을参照

2-13 견디기 좋을까요? > 견디다 (耐える) + 기 좋다 (~しやすい)

→ 견디기 좋다 (耐えやすい) + (을)까요? (~しましょうか・でしょうか?)

2-5을参照

## 語彙

증후군	: 症候群	나타나다	: 現れる	웬지	: なぜか
몸이 무겁다	: 体が重い	의욕이 안 생기다	: 意欲が生じない (やる気も起こらない)	다르다	: 異なる・違う
뭔가	: 何か	새로	: 新たに・新しく	신선함	: 新鮮さ
이미	: すでに	사라지다	: 失せる	학기	: 学期
새삼스럽게	: いまさら	그러나	: しかし	행복하다	: 幸福だ (幸せだ)
계속되다	: 続く				

話し合みましょう 下のテーマから自由に選んでみよう。

- 五月病になりやすいほうですか? あまり影響されないほうですか?
- 五月病と月曜病のうち、かかるとしたらどちらがましと考えますか? それはなぜですか?
- 五月病や月曜病の対処法、または克服法などを調べて話してみましょう。  
(経験談、紹介、お勧め、医学的な対処法など)



韓国では5月に「こどもの日」、「両親の日」、そして「師匠の日」という記念日があります。「両親の日」は元々「母の日」でしたが、「父の日」がないことから、1974年に「両親の日」と改められました。日本では、5月第2日曜日が母の日、6月第3日曜日が父の日となりますが、韓国では5月8日と固定です。

こどもの日は、1923年に児童文化活動家である방정환 (方定換: パン・チョンファン) が始めた運動に由来します。こどもの人権を高めるべく、子供たちの文化、芸術活動を奨励しました。어린이 (オリニ: こども) という言葉は方定換によって作られました。戦後5月5日がこどもの日と制定され、1957年にはこども憲章が宣布されました。こどもの日になると、青瓦台 (大統領官邸) をはじめ全国各団体がさまざまな行事が行われ、遊園地などの各種施設の利用が無料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





## 五月の記念日 오월의 기념일

5월에는 기념일이 많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이고, 5  
[오워레]

월 8(팔)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이 있어서 5월  
[스승에 날]

15일입니다.  
[시보이립니다]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축하해 줍니다. 일  
[추카해]

본의 어린이날과 비슷합니다.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카네이  
[비스탐니다]

션과 선물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본의 어머니  
[감사에] [저냅니다] [일보네]

날과 아버지날이 한국의 어버이날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은 한국 고유의 기념일입니다. 한국에는  
[고유에]

전통적으로 ‘스승은 부모와 동격’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동격]

래서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드리고, 중  
[3-5]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깜짝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깜짝행사]

기념일에는 각각의 노래도 있습니다.  
[작가께]

<sup>1</sup> 1963年9月21日の「恩師の日」が1965年5月15日の「師匠の日」として改められた。

<sup>2</sup> 例えば、子供の日：「어린이날 노래」(こどもの日の歌)、両親の日：「어머니 은혜」(両親の恩恵)、先生の日：「스승의 은혜」(先生の恩恵) などがある。

## 文法の解説

3-1 **있어서** > 있다 (ある) + 아/어서 (~して)  
있다 [語幹] + 어서

### 아/어의選び方

다의直前の母音がトかㄴのとき：아を選ぶ

받다 (もらう) + 아 → 받아    좋다 (良い) + 아 → 좋아

다의直前の母音がトとㄴ以外るとき：어を選ぶ

먹다 (食べる) + 어 → 먹어    불다 (吹く) + 어 → 불어

인스턴트 라면은 종류도 많아서 50가지가 넘어요.

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は種類も多く、50種類を超えます。

시의 인구가 점점 줄어서 해마다 5% 씩 줄고 있어요.

市の人口は段々減って、毎年5%ずつ減っています。

3-2 **축하해 주다** : 축하하다 (祝賀する・祝う) + 아/어 주다 (~してあげる)

3-3 **부모님께** : 両親に

께 : 에게, 한테 ((人)に)의尊敬形

### 助詞「~に」

(1) 에 ((場所・時間)に) : 한 시에 (一時に), 집에 (家に)

(2) 에게, 한테 ((人)に) : 친구에게, 한테 (友達に), 선생님께 (先生に)

3-4 **드리며** > 드리다 (さしあげる) + (으)며 (~してさらに)

3-5 **담아** > 담다 (込める・入れる・盛る) + 아/어(서) (~して)

3-6 **하기도 합니다** > 하다 (する) + 기도 합니다 (~したりもします)

쉬는 날엔 책 읽으러 카페에 가기도 해요.

休みの日には本を読みカフェに行ったりもします。

반찬은 주로 사서 먹는데 주말엔 만들기도 해요.

おかずは主に買って食べるのですが、週末には作ったりもします。



## 4. 出前文化

배달 문화

### 의の発音 3通り

- (1) [의] と発音される場合：의から始まる語  
의사 (医者) 의자 (いす) 의미 (意味)
- (2) [에] と発音される場合：助詞「の」として現れた場合  
친구의 친구 (友達の友達) [친구에 친구]
- (3) [이] と発音される場合：(1)と(2)以外のすべての場合  
거의 (ほとんど) [거이] 편의점 (コンビニ) [퍼니점]

### 語彙

어린이날	: こどもの日	어버이날	: 両親の日	스승	: 師匠 (先生)
선물	: プレゼント	비슷하다	: 似ている	마음	: 心
전하다	: 伝える	그런데	: ところが	고유의	: 固有の
전통적으로	: 伝統的に	동격	: 同格	사상	: 思想
그래서	: それで	중고등학교	: 中等学校 (中学・高校)	깜짝 행사	: サプライズイベント
각각의	: 各々の				

### ❖비슷하다: ~が似ている、~と似ている❖

엄마하고 저는 성격이 비슷해요. 母と私は性格が似ています。  
제 성격은 엄마하고 비슷해요. 私の性格は母と似ています。

話し合みましょう 下のテーマから自由に選んでみよう。

- 日本でも母の日と父の日を合わせたほうが良いと思いますか？
- 世界にある記念日についても調べてみましょう。
- 日本にも先生の日があったら何をしたいと思いますか？



スマホのデリバリーアプリに배민 (ベミン) というのがありますが、これは「배달의 민족 (ペダレミンゾク: 配達の民族)」の略語です。どうしてわざわざ「民族」という名前がついているのでしょうか。実は、ハングルの배달には2つの意味があります。ひとつは「配達」という意味ですが、もうひとつは「明るい山」という意味で、これは固有語です。漢字の音を借りて「倍達」と表記することもあります。

この배달 (明るい山) とは、古代から韓民族のことを指しています。つまり、「배달의 민족」とは韓民族の別名です。「明るい山」を意味する배달と「配達」という漢字語の読み方が同じであることと、出前好きの韓国人のこともあって、出前アプリに「배달의 민족」というのは納得できる名前だと言えます。



## 出前文化 배달 문화

한국 사람들은 시켜 먹는 <sup>(4-1)</sup>것을 좋아합니다. <sup>(4-2)</sup>배달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옛날부터 많은 식당들이 배달 서비스를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sup>(4-3)</sup>배달 음식은 짜장면이나 <sup>(4-4)</sup>짬뽕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짜장면을 시켜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요즘에는 치킨이나 피자를 비롯해서 <sup>(4-5)</sup>김밥, 라면, 심지어는 아이스크림까지 시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켜 먹는 장소도 다양합니다. 집이나 직장뿐 아니라 <sup>(4-6)</sup>공원에서도, 한강 공원처럼 <sup>(4-7)</sup>넓은 <sup>(4-8)</sup>곳에서도 시켜 먹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공원에서 시켜 먹는 것을 처음에는 금지했습니다만,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배달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sup>(4-9)</sup>스마트폰으로 <sup>(4-10)</sup>주문한 <sup>(4-11)</sup>음식을 배달존에서 받아갑니다.

배달 앱도 다양합니다. 음식을 시켜 먹을 때에 주로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배달원은 옛날과는 달리 그 식당의 직원이 아닙니다. 배달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sup>1</sup> 한강공원 (漢江公園) : ソウルを東西に流れる漢江の広域の河川敷が公園化されている。

## 文法の解説

4-1 시켜 먹는 > 시켜 먹다 (出前を取って食べる) + 는

動詞の現在連体形 1-2 を参照

4-2 를/을 좋아하다 : ~을 좋아하다

助詞「~을」を使用

4-3 대표적인 > 대표 + 적인 (~的)

법 (法) : 법적인 (法的な), 법적인 절차 (法的な手続き)

4-4 짜장면이나 > 짜장면 + (이)나 (AとかB・AやB・AかB)

김밥 (バッチム有) → 김밥이나 라면 (海苔巻きとか・や・かラーメン)

커피 (バッチム無) → 커피나 홍차 (コーヒーとか・や・か紅茶)

4-5 를/을 비롯해 : ~をはじめ

4-6 뿐(만) 아니라 : ~のみならず・だけではなく

4-7 처럼 : ~のように

4-8 넓은 > 넓다 (広い) + (은)

形容詞の現在連体形 : ~い・な (+名詞類)

### 形容詞の現在連体形

작다 (バッチム有) + 은 → 작은 꿈 (小さい夢)

친하다 (バッチム無) + ㄴ → 친한 친구 (親しい友達)

4-9 마련되어 있다 : 마련되다 (用意される) + 아/어 있다

아/어의選び方は 3-1 を参照

4-10 스마트폰으로 > 스마트폰 + (으)로 ((手段)で)

손 (バッチム有) + 으로 → 손으로 만들다 (手で作る)

버스 (バッチム無) + 로 → 버스로 가다 (バスで行く)

4-11 주문한 > 주문하다 (注文する) + (은)

動詞の過去連体形 2-8 を参照

4-12 옛날과는 달리 : 昔とは違って

일본 (バッチム有) + 과는 달리 → 일본과는 달리 (日本とは違って)

과거 (バッチム無) + 와는 달리 → 과거와는 달리 (過去とは違って)

語彙

문화	: 文化	발달되다	: 発達される	옛날	: 昔
음식	: 飲食(料理・食べ物)	장면	: 場面	자주	: 度々・しばしば
나오다	: 出てくる	요즘	: 最近	심지어는	: 果ては
경우	: 場合	장소	: 場所	다양하다	: 多様だ
직장	: 職場	처음	: 最初	금지하다	: 禁止する
효과	: 効果	받아가다	: 受け取って行く	앱	: アプリ
사용하다	: 使用する	배달원	: 配達員	직원	: 職員
직업	: 職業				

❖ 처럼, 같이, 같다 ❖

처럼: ~のように(助詞)

리에 씨는 가수처럼 노래를 잘해요. 理恵さんは歌手のように歌が上手です。

같이: ~のように(助詞)

리에 씨는 가수같이 노래를 잘해요. 理恵さんは歌手のように歌が上手です。

같이: 一緒に(副詞)

점심 같이 먹어요. お昼一緒に食べましょう。

같다: ~のようだ(形容詞)

리에 씨는 가수 같아요. 理恵さんは歌手のようです・歌手みたいです。

리에 씨는 가수 같아요. 가수처럼 노래를 잘해요.

理恵さんは歌手のようです。歌手のように歌が上手です。

같다: 同じだ(形容詞)

회의 시간은 어제하고 같아요. 会議の時間は昨日と同じです。

話し合みましょう 下のテーマから自由に選んでみよう。

- 出前をよくとるほうですか? どんなときに出前を取りたくなりますか?
- 出前を取るとしたら、どんな料理がいいと思いますか? それはなぜですか?
- 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の中で、日本でも取り入れたいものはありますか? 調べ、話し合ってみましょう。

## 5. 七五三、韓国では?

시치고산, 한국에서는?



日本では七五三という、子供の成長を祝う行事がありますが、韓国でも類似したものがあります。生まれて100日目を祝う백일(ペギル:百日)と1年目を祝う돌(トル)とがあります。新生児の死亡率の高かった昔は、100日目に赤ちゃんの無病息災を願い、1年目には人生の歩みはじめを祝ったと言われます。

ペギルの日は、朝食に白いご飯とわかめスープのお膳で삼신(サムシン:三神(赤ちゃんを授ける3つの神))に祈り、産母が料理を食べます。そして各種のお餅を作り町ぐるみで祝います。赤ちゃんはそれまで白い服を着ていましたが、その日から初めて色のついた服を着ます。わかめスープは、産母は一定期間ずっと食べますが、鉄分補給という理にかなった習慣と言われています。最近は、ペギルよりトルのほうを大々的に祝います。比較的記念日好きな韓国人は、100日目、1年目を記念したりしますが、ペギルとトルに由来するものなのでしょうか。



● 韓国語の活用形の体系 ●

				-(-으)-	-아/어-	
			-고, -지만, -는...	-(-으)면, -(-으)ㄴ, -(을) -(을)까요?	-아/어서, -아/어도, -아어 쓰-	
規則	가다	行く	가고	가면	가요	
	먹다	食べる	먹고	먹으면	먹어요	
ㄷ ☆	알다	知る・わかる	① S(ㅅ), P(ㅍ), N(ㄴ), (L=パッチムのㄷ) で始まる語尾を付ける際、語幹のㄷが脱落する。			
			② 語幹のㄷが脱落しない場合も으が要らない。			
으	쓰다	書く・苦い			쓰→쓰⇒씨요	
르	모르다	知らない			모르→몰르⇒몰라요	
러	이르다	着く			이르→이르르⇒이르러요	
ㄸ	걷다	歩く		걷→걸⇒걸으면	걷→걸⇒걸어요	
ㅍ	굽다	焼く		굽→구우⇒구우면	굽→구우⇒구워요	
ㅌ	돕다	手伝う		돕→도우⇒도우면	돕→도우⇒도와요	
ㅍ	뵙다	お目にかかる		뵙→뵈면(ㅍ脱落)	뵙→뵈⇒뵈어요=뵈요	
ㅅ	낫다	治る・ました		낫→나⇒나으면	낫→나⇒나아요	
ㅎ	그렇다	そうだ		그렇→그러⇒그러면	그렇→그러⇒그래요	
어	그러다	そうする			그러⇒그래요	
우	푸다	すくい取る			푸→포⇒퍼요	

☆ ㄷ 語幹

- ① S.P.N.(L) で始まる語尾を付ける際、語幹のㄷが脱落する  
(L) とはパッチムㄷから始まる語尾類である。例えば、-(을) 까요? が該当するが、-(으) 려면は該当しない。
- ② 語幹のㄷが脱落しない場合も으が要らない

		①-ㅁ니다, -는데, -고, -지만	①-(으)ㄷ까요?, -(으)ㄴ 데 ②-(으)면서, -(으)려면	-아/어 쓰-, -아/어서, 아/어도
動	만들다 作る	① 만듭니다. 만드는데 만들고, 만들지만	② 만들까요? ② 만들면서, 만들려면	
形	멀다 遠い	① 멀니다 멀고, 멀지만	① 멀까요? 먼데 ② 멀면서	